

반기문, 대권 도전 '작심발언' 이유는?

“출마 결심 굳힌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 정진석 원내대표 “JP 만나실거냐” 질문에 가·부 무반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주포럼을 방문해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술한 뒷이야기를 낳고 있다. 반 총장은 지난 25일 제주를 방문한 직후 가진 관훈클럽 초청 행사에서 “한국 시민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을 할지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가통합을 위해 모든 것 버리겠다는 지도자 나와야 한다. 미국 대선 후보는 76세인데 건강은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친박후보라고 해석되니) 기가막히다”는 등 민감한 발언을 쏟아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는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많이 도와달라”고 즉답을 피했던 반 총장이었다.



통진당 해산 재심청구 각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6일 오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선고 방청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옛 통합진보당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당 해산 심판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 총장의 제주 발언은 그래서 준비된 발언으로 해석하는 게 중론이다. 여론의 한고위관계자도 “예상은 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깜짝 놀랐다”며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 총장 입장에선 이번 제주 방문을 통해 어쨌든 질문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차기 대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 놓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의 모호한 행보가 가져다주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조금 견어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초청 대상이 아니었던 정진석 원내대표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도 눈길을 끌었다. 어수선한 당내 상황을 정리해야 할 정 원내대표가 급작스럽게 제주를 방문해 반기문 총장을 만난 것 자체가 ‘반기문 마케팅’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반 총장이 이날 적극적인 발언을 하면서 의외의 ‘선물’을 던져준 것이다. 25일 만난 행사는 원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호스트다. 애초 정진석 원내대표는

참석 멤버가 아니었으나 이날 민찬에 헤드테이블에 자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만난 자리에서 반 총장과 동향인 ‘총정’이라는 점을 과시하듯 반 총장과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행사 도중 정 원내대표는 반 총장에게 귀엣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민감한 시기에 무슨 말을 건넬지 관심이 집중됐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당시 정 원내대표는 반 총장에게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JP(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실거냐”고 물었

다고 한다.

반 총장이 이미 총청권의 큰 인물인 만큼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총정 맹주인 JP를 한번 만나게 좋지 않겠느냐는 권유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가타부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의 이번 제주 방문은 2017년 대선 가도에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키워놓으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반기문 대마론이라는 에드블론을 본인 스스로 띄워놓고 7개월 후 유엔 사무총장을

최경환 의원, 새누리당 대표 획득 '초읽기'

정진석 원내대표·김무성 전 대표와 '3자 회동'에 친박계 대표 격으로 참석

친박계 좌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당 대표 등극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최 의원은 24일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와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지도체제 개편 등 당내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원은 친박계 대표 격으로, 김 전 대표는 비박계 대표 격으로 자리한 셈이다.

사실상 계파 수장들이 모여 총선 참패 후 이어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친박의 대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

상 최 의원이 당권 도전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 해석이다.

당 대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김 전 대표와 최 의원, 정 원내대표가 이번 회동을 통해 단일지도체제로의 변화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번 전당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분리 선출될 전망이다.

현재 '조직 투표'의 핵심인 당협위원장과 당원 구성을 보면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친박계가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단일지도체제에서는 친박계 당권 도전 후보군이 단일화될 가능성도 높아 최 의원의 당권 획득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비박계에서는 이에 대적할 뚜렷한 후보군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비박계에서는 정병국 의원 외에는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후보자가 없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비박계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친박 후보 난립을 막고 확실한 친박 후보를 내세워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가 분열하지 않는 이상 최 의원의 당 대표 등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최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경우, 이는 곧 최 의원이 당 대표로 직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성주 기자

정의화 '새한국의 비전' 창립... 여야 인사 두루 참여

'미래권력을 위해 만들어진 준 정치결사체 성격'... 친박계, 더민주 친노·친문 제외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를 넘나드는 중도세력을 아우르겠다고 설립하는 '새한국의 비전'이 26일 오후 4시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한국의 비전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박관용 전 의장과 김중민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전배 국민의당 당 대표 등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국회의사무총장은 “10년 후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 주제의 연설을 했다. 새한국의 비전 연구원장을 맡게 된 반 총장의 연설 제목처럼 새한국의 비전은 미래권력을 위해 만들어질 준 정치결사체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여야 정당의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해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역임한 인사들도 적잖이 참여했다.

이시장은 정 의장이 맡았고 고문단에는 김덕룡 김문조 김병준 김진현 박관용 박광태 박세일 윤증현 이갑범 이상훈 이종찬 임현진 정덕구 최성용 최석원 최철, 임원단에는 구대영 김성 박경훈 안성열 이수원(가나다 순)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자문위원에는 권은희 길정우 김동철 김성곤 김성동 김성원 김영주 김용태 김장실 김정록 김준진 류성걸 문정림 박명재 박윤옥 박인숙 신의진 안재홍 안창영 염동열 우윤근 윤석용 이신범 이원복 이윤석 이춘식 임해규 정두언 정병국 정진섭 조병철 조해진 주영순 진영 채수찬 최봉홍 전·현직 의원이 참여했다.

또 기획위원에는 이명우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박홍신 유성식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흥미로운 것은 새한국비전에는 현재 야권 인사나 한 때 야권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먼저 고문단에 참여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최성용 전 주일대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적 멘토'다. 또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산자부 장관을 지냈고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과 우윤근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자

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밖에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조해진 권은희 의원 등도 참여했다. 사실상 새누리당 친박계나 더민주 친노·친문 세력을 제외하곤 우리 정치권 각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한 셈이 된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향한 새로운 정치실현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도세력의 빅테트론을 언급하면서 10월 신당 창당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장 세력이 국민의당과 연계하거나 순화규 전 더민주 고문을 합류시킬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정 의장 세력의 정치적 포괄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지역적 연고가 부족하고, 참여인사들을 하나로 묶을 만한 이념적 지향점도 뚜렷하지 않다. 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정 의장이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에 비해 영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찾간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비판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성주 기자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존중'

여야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존중 의사를 표출했다.

먼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현재의 결정에 대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묘비 건립 제막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얘기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더 협치를 통해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이루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여야 정치권이 서로 정갈 협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각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현재의 각하 결정은 입법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도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에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에 의한 일방독주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오는 현재의 각하 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에 기반을 둔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도 26일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에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여 현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후로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청년일자리TF 단장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 단장에 4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을 임명했다.

아울러 박광온·박정·박용근·오재세·유은혜·유승희·윤우덕·전현희·홍영표(가나다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TF위원으로 구성했다.

TF간사를 맡은 박정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정책 TF 1차 회의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우리당은 물론 다른 당의 총선 공약까지 검토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화 분야에 좋은 인재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공계 병역특례 문제도 심각한데 과학기술계에 대한 청년일자리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지난 12일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청년일자리 TF를 비롯해 서민주거안정, 가계부채, 사교육비 절감 등 4가지 분야에 TF를 만들기로 했다. 이 중 청년일자리TF를 가장 먼저 구성했다.

TF단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TF가 이례적으로 반짝하지 않도록, 또 전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성과연봉제 조사단, 8곳 조사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내달 2일까지 총 8곳의 공공기관을 방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은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 본점(5월30일), 부산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이상 6월1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보건복지병원(이상 6월2일) 순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지난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 성과연봉제의 도입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차례 벌였으며, 이날부터 7곳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가능하면 지역적 분포를 맞춰서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마친 뒤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단장인 한 의원을 비롯해 박관주·이학영·김기준·남인순·김경협·홍익표 의원, 이용득·송옥주·정재호·조승래·김대 총선 당선인, 이석형 당 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으로 구성했다. /이성주 기자

이춘석 '반기문 대권 후보 거론 공감 어려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아직 공적 지위에 있는 반(기문) 총장을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로서 옳은 것이냐. 상당부분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패배했고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다급함을 알겠지만 내부에서도 사실은 대권후 후보로서 거론되는 분들이 많은데 좀 안 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전임 사무총장으로서 할 일이 있을 텐데 바로 정치세력을 끌어들이는 게 옳은 것인지 부정적”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인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성주 기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 내정

새누리당은 당내 해산을 이끌 혁신형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동국대 총장을 지낸 김희옥(68)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내정했다.

김희옥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혁신비대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법무부 차관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동국대 총장을 역임한 분”이라며 “정렬하고 원칙을 지키는 소신으로 진지하고 활발한 혁신 논의를 이끌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내정자는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심의관을 하면서 국회 입법과정에도 밝다”며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 대표를 겸임한다. 김 내정자는 전국위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내정 과정에 대해 “당내 여러분이 좋은 분이라고 추천한 김 내정자를 정 원내대표가 이를 전 처음 만나 혁신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김 내정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간 몇 차례 통화가 있었고 오늘 오후 수락 결심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북고, 동국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법무부 차관, 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2010년 모교인 동국대로부터 총장직을 제안받고 현재 재판관 임기 도중 자리를 옮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성주 기자